

## 학교 교육과정 중 '주문형 강좌'의 개설 조건과 운영 규정이 궁금합니다

얼마 전 여름방학을 앞두고 아들의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신청과 주문형 강좌 개설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과목 개설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편성해주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조건일 때 주문형 강좌의 과목 개설이 가능한지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 김선미(50·경기 수원시 조원동)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 학교는 평일 오후나 주말에 새로운 과목을 주문형 강좌로 개설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문형 강좌'는 학교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이 수강을 원하는 과목을 적극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강좌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김현철 장학사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인원 규정 등의 조건을 따로 두고 있진 않다. 평일 오후나 주말에 수업을 개설할 수 있지만, 학생의 결석이나 결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능하면 평일 오후 시간을 권장하는 편이다. 참여 인원이 13명 이하인 수업은 석차등급을 산출하기 곤란해 등급을 내지 않는다. 때문에 성적 산출 부담 없이 성취도 평가만 실시하는 13명 이하의 수업을 주문형 강좌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 프로그램인 만큼 담당 교사가 학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등의 항목에 평가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등 기초 교과 영역의 과목을 주문형 강좌로 편성할 때, 기초 교과의 이수 단위 종합이 주문형 강좌를 포함한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기초 교과 90단위를 포함해 180단위를 이수하고, 영어 교과의 주문형 강좌 2단위를 추가해 총 182단위를 이수했다면, 총 이수 단위의 50%는 91단위이므로 기초 교과 90단위를 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기초 교과가 아닌 다른 교과에 속한 과목의 주문형 강좌 수강만 가능합니다. **㊣**

**이수 단위:** 일주일 동안 해당 수업에 할당된 수업 횟수. 예를 들어 수학 수업이 월, 화, 목, 금 4번 있다면 수학의 이수 단위는 4단위가 된다.

### MORE TIP

주문형 강좌와 비슷한 개념으로 '교육과정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김 장학사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주문형 강좌와 달리 인근 지역 학교들이 상호 협력해 운영하는 공동 교육과정이다. 여러 학교의 교사들에게 수업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고, 한두 명의 극소수 인원도 클러스터를 활용해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본교생 인원 비율은 65% 이하어야 합니다. 일례로 여러 학교에서 모인 학생 20명이 A학교에서 클러스터 수업을 받는 경우, A학교의 학생 수는 13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 고1 선택 과목 언제까지 변경 가능한가요?

선택 과목 결정을 앞두고 여러 변수로 고민이 많아요. 더군다나 아이가 자연 계열 진학을 희망하지만 전공을 정하지 못한 터라, 과학 과목 결정이 어렵네요. 학교에서 과목별 수요 조사를 하던데요. 과목을 선택한 후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까지 변경할 수 있나요?

— 박윤영(48·서울 송파구 잠실동)

## 통상적으로 1학년 겨울방학 전, 선택 과목 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학교는 1학년 7월 중 선택 과목 가수요 조사를 시작합니다. 2·3학년으로 진급했을 때 듣고 싶은 선택 과목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2학기 중 1~2회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겨울방학 전 선택 과목별 인원을 확정합니다. 물론 3학년 선택 과목은 2학년 때 다시 한 번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 덕원여고 김상근 교사는 “학교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다. 보통 1학기에 과목별 가수요를 조사하고 2학기 중간고사 때쯤 다시 조사해 선택 과목 수요를 결정한다. 간혹 학교가 공지한 선택 과목 결정 시점 이후, 진로 희망사항이 바뀌었다며 선택 과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학교는 이미 새 학기 시간표나 반 구성을 확정한 상태라, 학생들의 요구를 일일이 반영해주기 어렵다. 하지만 학교별 상황이 다르고 학생의 희망 사항도 중요하니, 담당 교사와 상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택 과목 결정 시점에 대해 교육청이 별도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학교의 자율 사항이다”라고 말합니다.

1학년 학생들은 충분히 고민한 후 선택 과목을 결정하고, 이후에는 시험 유불리에 대한 고민을 접고 학업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라는 것이 교사들의 조언입니다. ⓧ

### MORE TIP

김 교사는 “수시와 정시 혹은 물리학 선택을 놓고 고민들이 많다. 1학년은 고등학교 6학기 중 1학기만을 마쳤다. 우선은 수시를 목표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정시로 둘려도 결과가 좋다. 공대 희망자에게는 대학 공부까지 고려해 〈물리학 I·II〉 선택을 적극 추천하는 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21 선택 과목 안내서([www.serii.re.kr](http://www.serii.re.kr))’나 본지에서 발행한 ‘고1을 위한 선택 과목 가이드북([www.nojaesu.com](http://www.nojaesu.com))’을 참고 자료로 추천합니다. 취재 이지연 리포터 judylee@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mailto: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